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찾다

⑤ 한국불교 정체성 확인한 임제종운동

1910년대는 한일합방과 함께 조선의 일 본지배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불교계 역시 1910년 10월 6일 조동종맹약, 1910년 11월 6일 맹약에 반대한 임제종 운동의 전개, 1911년 6월 3일 사찰령 반포 등 격랑이 일 었고, 파도는 인간 군상들의 본능을 적나라 하게 드러냈다. 각자 한국불교를 중흥시켜 야 한다는 명분상의 목적은 같았지만, 걷는 길은 달랐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신념이 정법(正法)이었고, 개혁(改革)과 전통수호라는 이름이 목적지를 향한 각자 가 선택한 지름길이었다.

임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불교사 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되어 있다. 우선 항일과 친일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다. 다음은 이 극단적인 인식이 너무 단선적이고 이분법(二分法)적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불 교사의 여러 장면이 보여준 다양성을 고려 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결론 은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근대불교사 인식의 기초는 '사실(事實) 여부'다. 친일과 항일은 인식의 문제가 아 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이다. 요즘은 교계 일부에서는 "민족불교를 운운할 시점은 이 미 지나갔다"고들 한다. 민족불교를 강조 하는 것은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한 구시대 의 전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민족불교는 한국불교 고유의 정체성 과 독자성이다. 지금도 한국문화의 우수성 을 거론할 때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 므로 민족불교의 강조는 한국문화의 특수 성인 것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인식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근현대불교사자 지닌 다양성은 그 이후 의 인식의 문제다. 이 다양성은 향후 어떤 색채로 변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아직 친일과 항일에 대한 정연한 규정이나 해석조차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여부를 놓고 혼동 안 갖판을 벌인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근대불교사에서 항일과 친일의 문제뿐 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 난 사건이 조동종 맹약에 반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킨 임제종운동(臨濟宗運 動)이었다.

맹약은 단순히 한일 간의 특정종파가 친 선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원종(圓宗)이 근대불 교 최초의 교단이었으며, 불교발전을 위해 한 국 불교의 본산으로 각황사(覺皇寺)를 창 건하고, 명진학교를 불교사범학교로 승격 개편하는 등 불교쇄신과 발전을 위해 진력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인 가를 받기 위해 일본 조동종의 고문을 위 촉하고, 조동종의 한국 포교에 편리를 도모 할 것을 제결하였다. 더 가관인 것은 '조동 종무원이 필요하여 조선에 포교사를 파견 할 때는 조동종무원이 지정하는 사찰을 속

소로 정하여 포교 및 교육에 종사케 할 것' 을 명문화 한 것이다.

합방된 직후고, 그 이전부터 일본의 아욕 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이 맹약은 동등한 것이 아니었다. 설령 맹약 체결이 "쌍방의 뜻이 맞지 않으면 폐지, 변경 혹은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본질을 아 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부질없는 헛짓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맹약은 전시효과 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당시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원 종을 조동종에 병합시킨 것에 대한 분노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반대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실상은 다 같 은 선종(禪宗)이지만, 조동(曹洞)의 계열은 다른 파이고, 임제(臨濟)는 자기 집안이라고 하는데서 일어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종지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아 당파 사이에 앙투가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동시대 인물 이능화(李能化)가 <조선불 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서 서술한 임제종 운동의 배경이다. 한국불교의 종지·종통 이 엄연히 임제종(臨濟宗)에 연원(淵源)을 두고 있었던 일본 조동종에 송두리째 개종 시키고, 한국 불교를 일본에 할양(讓與)하 려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지나지 않지만, 한 때는 찬란한 문화민족으로서 문화와 문명을 야 만민에게 전해주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게 해주었던 향수를 지닌 나라아닌가. 더욱 이 부처의 고향을 제대로 흠뻑 오랜 기간 동안 큰 도적들이 부처의 뺨을 후려칠 정 도의 대장부 기상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생 물(生佛)과 조사(祖師)의 나라가 아니었던 가. 하기가 당시 종명(宗名)을 일본 종단의 이름을 빌려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 을 보면 일본 세력을 빌리고 힘을 믿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유의 종지나 종통 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용운이 1931년 임제종에 대해 술회한 부분에 의하면 "조선불교의 부흥을 도모할 때 원종(圓宗)의 맹약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단을 별도로 세워야 원종 을 자멸케 함이 첩경이라는 견지에서 조선 고유의 임제종을 창립하였다"고 하였다. 박헌영 역시 "조선불교의 연원이 임제종에 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동종과 연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진진응(陳震應)·박한영(朴漢英)·한용 운(韓龍雲) 등이 주축이 되어 1910년 10월 5일, 광주 증심사(證心寺)에서 회의를 열기 로 했지만, 사람이 적어 열리지 못했고, 그 이듬해인 1911년 1월 15일 순천 송광사(松 廣寺)에서 총회를 열고 송광사에 임제종 임시종무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당 시 김경운(金擎雲)을 관장(管長)에 임명했

임제종 운동 좌절...선학원 창립 씨앗



현재 범어사의 전경. 1912년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 임제종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은 2차 총회를 열고 범어사에 임제종 임시 종무원을 둘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일본 총독부의 탄압이 시 작됐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조동종과 굴욕적 '맹약' 한 원종

파괴 위해 임제종 운동 전개

사찰령 반포와 일본의 방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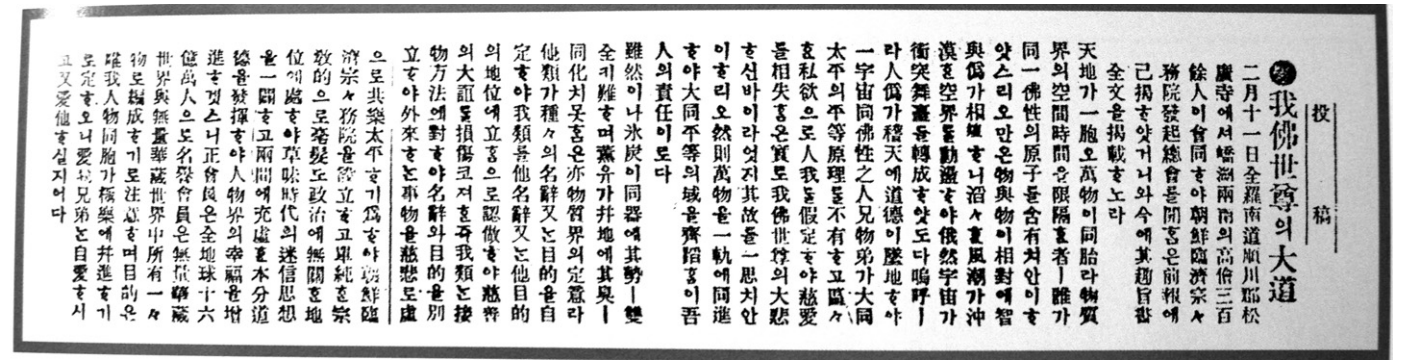
1912년 범어사에서 막 내리

'조선선교양종' 왜색 불교 상징

지만, 연료한 탓에 한용운이 권한을 대리하 였다.

1912년 하동 쌍계사에서 제2총회를 개 최할 때는 임제종의 종지를 널리 드날릴 것을 결의하고, 한용운·김학산·장기림· 김종래·임만성을 선출하여 범어사에 임 제종에 들어오도록 권유하였다. 범어사에 서는 처음에는 가입권을 따르려하지 않 았지만, 임제종 임시종무원을 범어사로 옮 기 것을 약속한 다음에야 그 요청을 받아 들였다. 이후 임제종은 동래·초량·대 구·경성 등 4개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하 고, 임제종을 그 정호로 삼았다. 이른바 남 당(南黨, 임제종)과 북당(北黨, 원종)의 갈 락과 충돌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1911년 6월 3일 사찰령(제령 제7 호) 7월 8일 사찰령 시행규칙(총독부령 제 84호)을 연이어 반포하여 양측의 싸움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해버렸다. 사찰령 이 반포되면서 30분사 또한 이미 법으로 정해졌고, 30명의 주지가 차례로 승인을 받 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법(寺法)을 제정하 는 일에 불착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원종



임제종종무원발기 취지서, 1910년 10월 6일 조동종맹약에 반대하는 임제종의 스님들이 맹약철폐를 요구하면서 발표한 취지서다.

을 이해해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을 인정해주면 그들 이 직접 관할하려는 정책에 차질을 줄 우 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찰령 반포 이후 종지의 정호를 한가지 로 통일하는 일이 주지총회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에서도 관심을 대상이 되었다. 한국불교가 지닌 정 체성의 싸움 원천적으로 잘라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남당은 오성월(吳性月)을 중심으로 임제종의 종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반면, 북당에서는 종지선정을 선점하기 위 해 총독부의 의도를 간파하고자 하였다.

총독부가 내린 결론은 조선시대 <경국대 전(經國大典)>체제에 기초한 선교양종(禪 敎兩宗)이었다. 이른바 '조선승니의 범계 품승(秉承)예일반(例一斑)' 속에는 '승니 의 성립', '승니의 입신', '승니시행의 제 도', '범계승진의 규제', '범계의 명칭' 등 을 규정한 것이다. 총독부의 이 조치로 원 종과 임제종은 간판을 내려야 했다.

명목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국불교가 지닌 생명력을 근본적

으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결국 이회광을 중 심으로 한 북당은 원종도 포기하고 임제종 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선교양 종(禪敎兩宗)을 사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살아남는 일이 종지에 우선하는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1912년 6월 '조선선 교양종 각 분산주지회의원'이라는 간판을 사찰령을 반영하고 종지가 사라져버린 왜 색불교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임제종에서는 범어사에 임제종 종무원의 간판을 걸고 활동이 지속되었다. 1912년 4월까지만 해도 서울 대사동(大寺 洞)에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을 개설하 였다. 훗날 선학원의 설립이념을 제시한, 당시 임제종의 관장대리인 한용운이 한국 불교(임제종)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포부가 반영된 곳이기도 하다. 한용운 은 이 일로 경성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 송되었다.

조선 사찰의 종지 정호는 수백년 전 종문 (宗門)의 제도를 개혁할 때 선교양종으로 정 하고 그 이래로 다른 움직임이나 증감이 없

었습니다. 근래에 귀하의 관내 사찰에서 제 출한 공문서류에 '조선임제종(朝鮮臨濟宗) 이라 기재하여 사찰의 명호(名號)에 드러난 곳이 왕왕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자 마음대 로 종지 정호를 세운다면 이로 인하여 일반 승려의 귀향상(歸向上)에 의혹을 낳거나 이 로 인하여 종지가 갈고 다르다고 분쟁을 일 으키게 됩니다.

1912년 6월 26일 조선총독부 내부부장 관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내린 통첩문(관 통첩 229호)의 일부분이다. 조선불교계는 더 이상 임제종을 내걸어서는 않된다는 통 첩이기도 하다. 관권을 동원하여 임제종의 활동을 제지한 것이다. 결국 임제종 종무원 간판은 범어사에서 내려졌다. 그러나 임제 종운동의 명맥은 사 라지지 않았다. 1921년 선학원의 설 립 당시 임제종운동 에 참여했던 인물들 이 다시 등장한다.



오영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효능"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 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 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 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살자다" 강원도 초대승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교양이 좋다" "마가목, 료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병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 상담 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너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명리(사주)학 학인 모집

당 문수불교문화원에서는 2013년 명리학인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반(6개월)
 - 음양론, 오행론, 사주의 구성, 합충법, 원진, 파, 해, 절기론, 대운법, 암장법, 공망, 당사주실무
 - 나. 중급반(6개월)
 - 육친법, 남파어의 육친작용, 포태법, 12신살론, 왕, 상, 휴, 수, 사, 조후론, 흉살, 길신 다. 고급반(실전교육)
 - 격국론, 용신법, 통변법이론과 실무, 풍수지리이론, 작명이론
 2. 개강일시
 - 가. 개 강 일 : 2013년 3월 13일(수요일)
 - 나.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명리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학기당 30만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원에서 교부)
 6. 강 주 : 현오(문수정사 주지) 구미지역 사회 교육협의회 명리학 강의(7학기 강의) 구미 노인대학 특강, 김천 도서관 특강
 7. 접수기간 : 2013년 3월 1일 ~ 13일까지(선착순 20명 이내)
 8.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3-16번지(지하철 1호선 반월당 2번 출구 앞)
- 연락처 010-2509-5535

문수정사 문수불교문화원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에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에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